

2018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·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주관 토론회 “미투운동, 그 변화와 연대-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다”

1. 필요성

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희롱 피해 폭로로 시작된 한국사회 내 미투운동(#Me, too)은 권력과 위계에 의한 폭력, 젠더라는 다양한 이슈 생산을 시작으로, 사회 구석구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.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(이하 가여협)는 폭력 피해여성들(젠더기반 폭력 피해자)의 치유와 자립을 돕는 동행자로서, 미투운동을 기점으로 한 현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다. 이제 가여협 내 미투로 인한 변화는 무엇이며,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, 발전,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논의하고,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. 하느님 사랑 실천이라는 가톨릭사회복지 현장에서 누구보다 더 치열하고 뜨겁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, 피해자 개인의 치유와 자립뿐만 아니라,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.

2. 개요

사 업 명	“미투운동, 그 변화와 연대-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다” 토론회		
목 적	본회와 가여협 공동 주관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, 가여협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증진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구조화한다.		
목 표	1. 가여협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증진 및 역량강화를 도모한다. 2. 피해여성 지원 현장의 지원체계를 구조화한다.		
대 상	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소속 시설장, 종사자 및 본회 산하시설 종사자 등 100명		
참 여 자	발제: 이나영 교수(중앙대학교 사회학과) 좌장: 소속희 시설장(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) 토론: 차인순 심의관(국회 입법심의관) : 정책 및 제도 이현숙 대표(탁틴내일) : 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 전성희 시민인권보호관(서울시청 서울혁신기획관) : 2차피해 및 가해, 피해자 상담 사례 전복선 팀장(성매매피해여성인권상담소 소년의집) : 성매매피해자지원현장		
일 시	2018. 10. 18. (목) 14:00-16:00	장 소	서울대교구 교구청 501호

3. 당일 일정

시간	내용	비고
13:30~14:00	접수 및 등록	
14:00~14:05	인사말씀	김옥연 수녀 (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장)
14:05~14:10	축사	박경근 신부 (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장)
14:10~14:50	<발제> 미투운동에 따른 사회변화 및 문제점, 향후 발전 방안	이나영 교수 (중앙대 사회학과)
14:50~15:00	휴식	
15:00~15:50	<토론> 차인순 심의관(국회 여성가족위원회) 이현숙 상임대표(탁틴내일)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(서울시청 서울혁신기획관) 전복선 팀장(성매매피해여성인권상담소 소나의집) <질의 및 응답>	좌장: 소속희 시설장 (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)
15:50~16:00	폐회	김옥연 수녀 (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장)

4. 참고 사항

1) 신청방법

- ① 유선연락 : 02-727-2238
- ② 홈페이지 : www.caritasseoul.or.kr(알림참여→공지사항)
- ③ 신청기한 : 2018.10.01.(월) - 2018.10.16.(화)

2) 유의사항

- ① 주차비 지원이 없으므로,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(약도 첨부).
- ② 개인컵을 지참하여 주세요.

3) 담당자 :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여성복지 담당 최승아(02-727-2238)